

와인사업 팔 걷은 대기업... 유통빅3 이어 두산·한화 도전

(신세계·롯데·현대)

흡술 열풍타고 판매 ↑... 고속 성장 자사 설립, 해외 와인러리 인수 활발 위드코로나에 성장세 완화 시각도

‘유통 빅3’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그룹에 이어 한화와 두산까지 와인 사업에 합세했다.

팬데믹 사태 중 ‘혼+흡술(혼자 집에서 마시는 술)’ 열풍으로 시작한 와인 유행은 엔데믹(풍토화)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직접 프리미엄 와인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와인러리까지 인수하며 최고급 프리미엄·컬트 와인부터 ‘가성비’ 와인까지 바쁘게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후 와인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가장 최근 와인 사업에 뛰어든 곳은 두산이다. 두산은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의 두타몰 지하 2층에 ‘탭샵(TAP SHOP BAR)’을 열었다. 탭샵은 입문용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한 와인 64종을 진술로 제공하는데, 주기적으로 와인리스트도 업데이트 한다.

두산의 면세점 사업 철수와 코로나



지난해 11월 보틀벙커 제타플렉스점에서 테이스팅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클레르 뒤르통’(샤도 뒤포르비방, 샤도 오바쥬 리베랄, 샤도 페리에르 총 3개 와인러리의 오너). 와인사업을 둘러싼 유통 대기업들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두산과 한화도 와인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19로 인한 방한 관광 중단으로 두타몰이 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두타몰 살리기’의 계책으로 와인 사업이 선택됐다는 점에 업계의 관심이 크다. 특히 오픈 후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탭샵바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탭샵바는 방한 관광객을 타깃으로 했다고보다는 최근 두타몰에 문을 연 셰이크쉐와 함께 국내 MZ세대를 타깃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구매력을 행사 중인 MZ세대 국내 고객들을 기반으로 침체한

두산 유통부문의 발판을 닦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화솔루션도 지난해 연말 와인러리를 인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말 미국법인 한화솔루션USA홀딩스코퍼레이션을 통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부티크 와인러리 ‘세븐 스톤즈’를 3400만 달러(약 431억원)에 인수했다.

한화의 와인 사업 청사진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바 없다. 올해 갤러리아의 인적분할을 앞두고도 한화솔루션이 인사이드 부문을 통해 인수했다는 점

때문에 업계에서 의견은 나뉘는 분위기다. 와인 사업을 본사 차원에서 주력할 것이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가운데, 리조트 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일 것이라는 시각이 함께 하고 있다.

유통 빅3가 와인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가운데 두산과 한화솔루션이 와인사업 개진 소식이 들리며 유통가 전반에는 와인 시장의 성장성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룹은 본격적인 와인사업을 위해 잇달아 대형 와인 매장을 열고 백화점은 물

론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와인을 공급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정용진 부회장의 주도 하에 웨이퍼 빈야드 와인러리를 인수했고 롯데는 2021년 12월 서울 잠실 제타플렉스 점에 400평 규모의 대형 와인숍 보틀벙커를 열고 창원과 광주에 2, 3호점을 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해 3월 와인 수입 유통 전문사 ‘비노에이치(Vino.H)’를 설립한 후 와인 중심 복합 공간 ‘와인웍스’를 3개월 사이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더현대 대구에 2곳 더 열었다. 2019년 와인웍스 설립 후 무역센터점과 더현대 서울 두 곳만을 운영하다 연말에 추가 개점도 했다.

일부에서는 와인 시장의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엔데믹을 맞아 맥주와 소주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집에서 홀로 마시는 흡술 유행이 시한부에 들어갔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급 주류에 대한 니즈도 확실하지만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돌아온 후에도 흡술 유행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제과, ECO 선물세트 확대... ‘친환경 명절문화’ 선도

일부 부직포 소재까지 종이 대체 캔햄, 스낵 등 선물세트 60종 판매

롯데푸드와 합병으로 종합식품회사로 거듭난 롯데제과가 캔햄부터 스낵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 60종을 본격 판매한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업계 선도적으로 선물세트 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전면 없앴으며 올해도 이러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간다. 전체 30여종의 ‘ECO 선물세트’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캔햄의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FSC(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종이와 친환경 공기름 잉크로 특수 트레이 및 케이스를 제작했다. 특히 지난 추석부터는 ECO 선물세트 일부에 사용되던 부직포 소재까지 종이로 전량 대체한 100% 종이 쇼핑백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제과가 설을 맞아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롯데제과

실제로 선물세트 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전면 퇴출하면서 연간 51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롯데제과는 ‘ECO 캔햄 세트’에 ‘로스팜97’ 구성을 새롭게 선보인다. 로스팜97은 97.05%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돈육 함량을 자랑하는 캔햄이다. 햄 본연의

풍미와 식감은 살리면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돼지고기 최대 함량을 꽉 채운 프리미엄 캔햄으로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기에 적합하다.

이와 함께 엄선된 돈육에 7가지 성분을 무첨가해 건강하게 맛있는 ‘로스팜 엔네이처 마일드’, 100% 국산 돼지고기와 의성마늘로 만든 ‘의성마늘 로스팜’, 구이와 찌개에 모두 어울리는 ‘런천미트’ 등 다양한 캔햄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캔햄, 카놀라유, 참기름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성된 ‘ECO 혼합 세트’로 가격대와 종류 등 선택의 폭도 넓혔다. 고물가에 경기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가성비 높은 선물을 찾는 알뜰소비족을 공략한 것이다.

‘홈카페’, ‘홈디저트’ 등 일상 속 취식

트렌드를 반영한 특별한 선물세트도 판매한다. 산지 본연의 특징을 살린 스페셜한 블렌딩으로 원두커피의 맛과 향미가 풍부한 ‘칸타타 시그니처 드립 원두커피 세트’, 남녀노소 좋아하는 달콤한 간식으로 채운 ‘간식자판기 세트’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파스타르 캐번두유 및 생(生)유산균 세트, 프리미엄 견과 세트 등 다채로운 선물세트가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껌, 비스킷, 파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 ‘설날 종합선물세트’도 공식 온라인몰인 ‘롯데 스위트몰’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며 200세트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에이피알이 3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R&D센터 ‘ADC’ 개소식을 열었다. /에이피알

에이피알 R&D센터 ‘ADC’ 개소

에이피알이 3일 혁신 뷰티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R&D센터 ‘ADC’를 공개하고 내재화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이날 김병훈 대표이사, 신재하 부대표 및 ADC 신재우 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ADC’(APR Device Center) 개소식을 갖고 미래 뷰티 테크 기업으로 방향 청사진을 공개했다.

ADC는 ‘기술로 이룩하는 뷰티’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 뷰티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뷰티 전문 R&D센터다. /김서현 기자

퀄리, 상장 연기... “기업가치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재추진”

지난해 이커머스업계 평균 이상 성장 경기불황으로 인한 투심 위축 고려

퀄리가 연내 한국거래소 상장을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상장 예비심사 통과 4개월만에 상장 연기 소식을 전한 퀄리 측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해 한국거래소(코스피)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퀄리는 지난해 3월28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5개월여만인 8월22일 심사를 통과했다. 예비심사 통과 후 6개월(180일) 내 상장을 하지 않으면 예비심사부터 전부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지난해 3월 이후 국내외적으로 유래 없는 경기불황으로 코스피가 1년 사이 25% 하락해 2230대까지 폭락하면서 상장 의사를 밝힌 많은 기업이 계획을 연

기하거나 포기했다. 퀄리 또한 지난 2021년 프리 IPO 단계에서 재무적투자자 앵커에퀴티파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4조원을 인정받았지만 장외 시장에서 거래절벽을 맞닥뜨리며 8000억원대 초반까지 기업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 나왔다. 시장 전반이 보수적인 태도로 전환하면서 유니콘 기업이면서도 동시에 적자기업인 퀄리가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졌다.

퀄리는 “퀄리는 지난해 이커머스 업계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을 이뤘다”며 “계획 중인 신사업을 무리 없이 펼쳐가기에 충분한 현금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올해 퀄리 거래액은 2조5000억원대다. 지난 2021년도 매출액은 1조5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2177억원을 기록했다.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위풍당당 프로젝트’ 가동

홈플러스가 올해 ‘2023 위풍당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진행하는 2023 위풍당당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기술로 ‘AI 최저가격’ 상품을 선정한다. 또 홈플러스가 지금까지 “물가안정 최저가보상제”, 물가안정 365를 유지 시행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